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차별에 맞서 투쟁했다!

- 서명운동과 1인 시위, 서울상경투쟁 등으로 상반기 총력전 펼쳐 -



2013년 상반기 학교비정규직 투쟁은 그 어느 해 보다도 치열했다. 1월 2일 새해 벽두부터 학비연대 공동으로 국회 앞에서 고용불안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새 정부에게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및 차별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말 교육부가 계약해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6,475명이 계약해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희망과 무관하게 계약해지 된 인원이 4,635명이며 이중 무기계약자도 679명이나 달했다.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조차도 기피하고,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처우개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동안 학비연대의 요청으로 3차례 걸쳐 국회에서 처우개선비 예산편성을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올해는 여성노조를 비롯한 학비연대 차원에서 교육부의 본 예산에 학교비정규직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투쟁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5월 30일, 교육부 앞에서 호봉제 실시·교육공무직법 쟁취를 목표로 상반기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향후 입장발표는 공동으로 하고 투쟁은 여성노조가 청와대 및 교육청 앞 1인 시위, 1만 명 서명운동을, 전회련은 국회앞에서 농성을, 학비노조는 교육부 앞에서 농성과 단식, 식발투쟁을 전개하였다. 6월 22일, 전국의 조합원들의 의지를 최대한 모아내기 위해 서울에 모였다. 여성노조 700여명은 동화면세점 앞에서, 타 노조는 독립문공원과 서울역에서 각각 결의대회를 한 후, 서울역에 모인 3개 노조 15,000여명은 서울상경투쟁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부는 이에 전례없이 국회, 청와대와 협의하고 관계부처(기재부, 안행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와도 협의하는 등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야단법석이었고 7월 30일에서야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했다. 물론 예상했던 대로 호봉제 실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시직종 1년 이상자 무기계약전환·장기근무가산금 개선과 근무일수제 폐지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교육부의 1차안에 불과하지만 기간제법보다 앞선 무기계약전환이 담겨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최대 인원을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 문제, 온갖 요란을 떨며 발표한 처우개선안 기본방향은 아직도 우리의 요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반기에 예정된 총파업을 전 조합원이 참여하여 힘 있게 투쟁을 전개할 때 임금차별을 바로잡는 제대로 된 호봉제 실시·교육공무직법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지부, 여성노조 최초 교육청과 단체협약 이루어내다!

지난 7월 8일 우여곡절 끝에 여성노조 전북지부를 비롯 전북학비연대회의는 전북교육청과 2013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우리 노조가 2012년 6월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2012년 8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파업을 불사하며 1년여 동안 단체교섭을 진행한 끝에 얻은 값진 성과라는 점, 임금과 직종 미합의사항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성노조 최초 교육청과 단체협약체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전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성노조가 대표노조가 되어 실무에서부터 단체교섭진행까지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단체교섭을 이끌었으며, 여성노조 교섭위원들 또한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그동안의 교육청을 만나면서 다져진 경험으로 당당하게 교육청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시간: 학교근무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시간적용.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병가: 연 60일,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첨부할 경우 연차를 공제하지 않음, 유급휴일: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유급휴일로 정함. 육아휴직: 2년 이내이며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만8세까지 적용, 단체협약 적용: 조합원에게 적용, 조합원교육: 학기별 4시간(유급) 등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다. 특히 근로시간 면제자 2명을 확보하여 현재 마련된 교육공

무직(준) 사무실에서 상근활동을 하면서 조합원 관리 및 조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전주시역 특수교육지도사 연수기간에 여성노조 전북지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또한 앞으로 하반기 지부확대간부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서울 | 서강대분회 10년 노조활동, 조합원과 함께 축하잔치 열어



지난 7월 25일 서울지부 서강대 분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서강대 이나시오 강당에서 기념잔치를 열었다. 하조남 분회장의 대회사로 시작으로, 나지현 위원장, 서강대 조현철 신부가 격려사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날 멀리 인천에서 인천대분회장과 인하대분회장이 한달음에 달려와 뜨거운 연대사를 전했다. 늘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맑은 학생회 대표와 대학원총학생회 대표도 함께 연대사를 삼구회사 이사와 서강대노조위원장의 축하도 있었다.

곽덕순 서울지부 초대 조합원은 1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첫차 타는 사람들>이라는 축시를 낭독했다. 서강대분회 노조 결성과 함께 10년째 조합원 활동을 해 온 장석순 조합원은 그 동안의 소회를 글로 적어 낭독했다. 전영에 초대분회장에게는 조합원들이 감사의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조합원모두가 참여하는 관별 장기자랑은 단결과 끼를 한꺼번에 보여준 흥겨운 시간이었다. 동문관이 단결상, 가브리엘관이 분위기상을, 다산관은 멋쟁이상을, 단독 무대를 선보인 윤여주 조합원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조합원과 서강대 학생으로 구성된 풍물패의 공연한마당으로 10주년 기념잔치는 막을 내리고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마무리했다.

| 경기 | 건강한 체력과 정신으로 거듭나기 '조합원 간부수련회' 개최



경기지부는 2013년 상반기를 정리하는 조합원 간부수련회를 열었다. 지난 6월 29일, 용인 한화콘도에서 1박2일을 보내며 하반기에는 더욱 더 성장하는 노조와 조합원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으로 일정을 보냈다. 건강한 체력과 정신을 갖게 하는 활동으로 주변의 등산로를 조합원과 함께 등반했다. 오후에는 조합원이 준비한 맛있는 재료들로 저녁을 만들어 먹고(아직도 잊을 수 없는 매운탕의 맛!) 상반기 조합 활동 총정리와

교육청과의 교섭 및 제반사항들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즐겁고 행복하면서도 의미 있었던 간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한 조합원여러분들, 하반기에도 아자! 아자! 파이팅 하자구요.

| 인천 | 학교비정규직 교섭 중, 하반기 교육감직고용 조례 통과를 목표로!



인천지부는 소위 보수교육감 진영에서 최초로 절차합의를 마무리 지어 가장 먼저 교섭에 들어갔지만, 5차까지 이어진 실무교섭동안 교육청과 노조의 입장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절차합의서에 가장 먼저 사인한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교섭에 참가하는 하되, 눈치보며 시간끌기만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8월 26일 예정된 실무교섭과 이어 진행될 본 교섭에 기대를 걸어본다.

또한 인천지부는 작년 보류로 통과되지 못한 학교비정규직 교육감직고용 조례를 다가오는 9월 회기에는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의원면담과 여론작업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전북 | 단체협약서 설명회 및 전보발령기준 지역별 공청회 개최



강원도와 광주, 전남(목표)교육청이 전보발령기준을 발표, 시행하면서 현재 조합원들의 모든 관심은 전보발령기준이다. 지난 5월경 전북교육청은 전보발령기준을 만들었다며 노조에 내용을 보낼 테니 논의하자라고 입장을 밝힌 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전보발령기준 초안을 이제야 작성 중에 있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여성노조 전북지부는 교육청이 일방적인 전보발령기준을 만들기 전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청에 제시하고자 지역 및 직종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직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수의 조합원들은 전보발령 자체를 싫어하고, 만에 하나 전보발령을 시행할 시에는 근거리를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

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후 임금교섭 및 직종미합의 사항 교섭진행 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예정이다.

| 광주전남 | 뜨거웠던 과학실무사들의 7월 투쟁! 교육청과의 단독면담 이끌어내



광주전남지부 과학실무사지회는 MSDS를 비치하라는 공문과 안전점검은 하면서 위험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하고 작년 9월부터 영재학급 운영 수당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전면 중단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하는 집중집회를 열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5시,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이버시위도 함께 진행했다. 그런데 교육청이 사이버시위를 한 학교를 찾아와 안전점검을 가장한 표적감사를 시행한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투쟁이 힘들게 되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오히려 조합원들의 투쟁 열기는 더욱더 높아져갔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여성노조에 단독 면담을 요청해 왔고 '영재학급 운영 수당은 내년부터 지급하겠다, 위험수당은 다 같이 노력해 보자, 그리고 365직종으로의 전환도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제 막 소통을 시작하였기에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 여성노조와 함께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하겠다.

| 대전충청 | 목원대분회, 일석사조로 더위 이기며 7월 조합원교육 마쳐



한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30일, 목원대 학생들의 방학으로 대청소를 준비하던 조합원들이 시원한 지하 강의실로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일석사조!' 몸도 풀고, 마음도 풀고, 입도 풀고, 머리도 풀고... 이것이 이번 조합원 전체모임의 콘셉트! 먼저 박경숙 조직부장의 간단 요가로 일하느라 여기저기 쑀신 몸을 한결 부드럽게 풀었다. 그리고 무더위를 한방에 날려줄 시원 달콤한 수박으로 입을 풀면서 '사랑합니다~' 격한

포옹으로 서로 보듬고 안아주면서 마음도 풀었다.

그리고 이번 모임의 교육은 목원대분회 교육을 위해 멀리 인천에서 한달음에 와주신 나지현 위원장이 노동 3권부터 복수노조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 그대로 열강을 해주셨다. 다음달 8월 29일, 여성노조 생일파티를 기약하며 마무리 되었다.

| 대구경북 | 인생, 지금부터 시작이다! 꽃다운 그녀들의 60잔치



7월 17일 경북대 미화원분회 언니들의 60잔치가 열렸다. 이번 60잔치는 올해 60세 생일을 맞은 조합원은 약 20명. 경북대 청소노동자로 살아오면서 이제 정년을 맞이하게 되면 동지들과 아쉬운 이별을 해야 한다. 60잔치는 여성, 어머니, 청소노동자로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고령화가 되어가는 현실에 노후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꽃다운 그녀들의 인생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을 하자는 뜻 있는 자리였다.

경북대 권순영 문화부장의 진행으로 풍물 공연과 함께 시작했다. 댄스팀의 율동공연과 요가팀의 노래 공연, 분회간부들의 율동공연이 흥을 돋았다. 이어, 축하영상과 떡케이크 커팅, 생활관분회, 급식지회, 사무지회 등의 축하금이 전달되면서 그야말로 한바탕 잔치였다. 참여한 조합원들은 한결같이 “형님들 덕에 노조가 이렇게 든든하다,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매년 60잔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 울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5주년 맞아 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캠페인 진행



울산지부는 2013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5주년을 맞이하여 울산시청 앞에서 요양보호사조합원들과 여성시·구의원 등 10여명이 함께 요양보호사의 실태를 알리고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열었다.

전국 140여만 명 요양보호사 중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5만 명, 울산에도 2만 명 중 4천여 명이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88CC 김은숙 분회장,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 받아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여성노조 88CC 김은숙 분회장의 업무방해죄에 대해 지난 8월 2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무죄로 최종 확정 판결했다. 2008년 사측은 경기진행 독촉에 대한 내장객의 항의를 경기보조원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배치에서 제외하자, 순번대로 나갈 것을 지시한 김은숙 분회장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 조치하였고 최종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 김은숙 분회장은 “대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은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경기보조원들은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아내야 했다”고 말했다. 2008년 사측은 이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조합원에게 노



조 탈퇴를 강요하고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노조 와해작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 5명 포함 최초 출장유보자 48명을 해고 조치했다. 88CC 분회의 조합원들은 5년째 매월 국가보훈처 앞에서 원직 복직의 결의를 다지는 집회를 열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울산지부는 지난 4월부터 울산 지역의 요양보호사노동자들의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파악하게 되었다. 울산지부는 저임금, 시급비정규직, 불안정한 노동인권침해에서 벗어나 진정한 돌봄노동자로서 자존감을 갖고 안정되고 보람있는 요양현장을 만들기 위해 요양보호사 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 경남 | 경남지부의 여름은 조합원 확대의 계절!



경남지부는 지난 8월 7일 창신대학 대강당에서 이루어진 급식종사원 위생교육장을 방문하였다. 경남지역의 단체교섭상황과 교육부 교섭진행 상황 등 학교비정규직 투쟁활동을 알리고 여성노조를 알리면서 오전, 오후 두 차례 등록하는 시간을 이용해 조합원가입을 권유하는 홍보활동을 했다.

또한 7월 29일 특수교육실무원 연수를 시작으로 과학실험원 산업안전연수, 진주지역 과학연수, 김해지역 과학연수 등 학교비정규직이 함께 하는 자리에 여성노조 경남지부가 함께 하였다. 각 직종별 연수처를 방문하여 경남지부의 활동과 현재 진행되는 투쟁활동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경상남도 교육청과의 교섭이 시작될 것이며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조합원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다.

전주에서 뭉친 신입활동가들, 놀이 공부하며 계획하며!

- 신입 상근간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

저는 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홍보부장으로 상근하고 있는 한지영입니다. 전주에서 1박 2일(8월 8일~8월 9일) 일정으로 신입 상근 간부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전북지부에 도착해서 타 지역 상근 간부들과 맛있는 점심을 먹고 수련회가 진행 될 전주 시민놀이터에 도착했습니다. 첫 강의로 나지현 위원장님이 여성노조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임운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님이 노동자회의 역사와 여성노동운동에 대해 강의해주셨구요. 저녁시간, 이주환 일하는 여성아카데미 원장님의 멋진 강의로 식곤증은 저 멀리 달아나고 모두가 모둠토론을 하며 열심히 인생 설계를 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 전북지부가 정성껏 마련해준 숙소에서 전주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영동통닭’과 ‘갑오징어’, 독특한 소스의 맛은 지금도 생각하면 허끝에 침이 고일 정도로 잊을 수 없는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상근자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들이나 어려움들을 같이 나누면서 밤이 깊어갈수록 좀 더 친해진 듯 익숙해져갔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지역 신입 상근 간부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이번 기회에 지난 1년여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육과 수련회 자리를 통해 많은 상근자들이 서로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한지영 광주전남지부 상근활동가

[연재] 시간제 일자리 여성노동자 상담, 조사사업을 시작하며 ①

시간제 일자리 여성노동자의 삶 속에서 함께 답을 찾아가자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해소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하여 정부는 지난 5월 27일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의문을 표했다. 과연 이 정책이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 정말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할까? 시간제 일자리가 여성 노동자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대답은 부정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마련했지만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한국사회의 현실은 여성노동자나 시간제 노동자나 열악한 처우를 감내해야 하는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간제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 중 10.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 비중은 72.3%로, 현행 시간제 일자리는 대체로 여성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도소매업을 제외한다면 여성이 주로 시간제 일자리로 종사하는 업종은 '돌봄' 및 '공공부문'으로 특히, 시간제 일자리 중 28.4%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정책은 여성 일자리의 질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다. 이미 여러 직종에 시간제 일자리로 일하는 여성이 많지만 이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취약하다. 특히,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인 돌봄 영역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

자리가 확대됨에 따라 이 부문을 여성 노동자들이 채울 것이 예상되어, 이들이 자신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마음 편히 상담할 수 있는 지역별 상담원이 필요하다.

한편,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고충 및 근로 실태에 대한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실제로 여성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였는지를 분석하고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 있다. 시간제 일자리 고용 통계만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내용이 정리될 때 보다 내실 있는 여성 고용 정책에 대한 제언도 가능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다.

여성노조는 8월부터 서울, 경기, 광주전남, 울산, 경남 등 5개 지부에서 상담원을 두고 시간제 여성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찾아 각 지역의 시간제 여성노동자들을 심층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여성 노동자의 삶에 가져다주는 효과를 정리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연말에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하반기 동안 진행될 이 사업은 현장에서부터 시간제 일자리 여성노동자를 만나고, 그 속에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의미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알바면 안줘도 돼? 벼룩 간 빼먹는 <모임공간 윈스터디> 상대로 체불된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아내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시급을 받고 일하는 청년 알바 노동자들이 그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요구하면서, '알바'라는 이름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노동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모임공간 윈스터디>(이하 윈스터디)에서 일하는 여성 청년 노동자들도 같은 문제로 노조를 찾아왔다. 윈스터디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법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여성노조는 작년 여름부터 청년유니온 및 노동사회연구소와 함께 이 사건을 청년 노동 문제로 제기하는 한편, 조합원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조합원 2

명에 해당하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체불임금 7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윈스터디의 노동법 위반이 심각하자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까지 실시한 바 있지만, 최근 다른 조합원들의 증언을 통해 여전히 윈스터디가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윈스터디는 청년 노동자들의 상황을 악용하여 아르바이트생부터 점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저임금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고용해왔다는 점도 큰 문제다. 여성노조는 앞으로 다른 조합원들의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진정하는 한편, 이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청년노동자들이 더 이상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서강대분회 창립 10주년 기념 축시

첫차 타는 사람들

첫차를 타는 사람들은
선잠에 겨워하는 기사에게 하루를 열고
70년에는 산업현장의 역군이었고
80년대는 비정규직이란 새 이름이 주어졌고
90년대는 저임금의 수혜자이고
2000년대 글로벌시대에도
우리의 몸값은 바닥을 치고
첫차를 타는 우리들은
새벽 칼바람이 불을 에어도
분세수 곱게 하고 희망에 산다.

- 광덕순 조합원 -

여성노조 학교비정규직 조합원수련회

- 일시: 2013년 8월 31일(토) 11~18시
- 장소: 대전근로자종합복지회관 대강당
- 내용: 학교비정규직 상반기 투쟁 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
모듬별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 및 실천 방안 토론



여성노조 간접고용 조합원수련회

- 일시: 2013년 9월 27일~28일(양일간)
- 장소: 충청권역
- 내용: 분회별 투쟁보고와 교류 / 간접고용문제 제대로 알기
인천지부 연극공연

